

조계종 내년 예산 446억원 확정

중앙종회 만장일치로... 포교원 기금 법령 제정키로

세계화 사업 1억 원 편성
전산·지적 재산권 홍보 등
중단 기반 사업에도 반영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내년도 예산이 446억 원으로 확정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황적)는 11월 13일 제196차 정기회에서 중앙종무기관 예산안을 조정하고 일반회계 235억 3천만 원, 특별회계 211억 5천만 원을 만장일치로 예산을 확정했다. 이 액수는 총무원이 제시한 예산안보다 4억여 원이 줄어든 것으로 통상 5%로 올랐던 예비비가 과대 책정돼 지적받음에 따라 조정된 것이다. 특별회계에는 시설관리에 62억 2

천만 원이 교육불사에 40억 4천만 원, 신도교무에 5억 1천만 원, 승려 복지에 25억 8천만 원 등이 편성됐다. 이와 함께 종회의원들은 포교원에 포교기금 설치를 위한 법령을 제정해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포교원 신규 사업의 경우 사업서를 받아 예비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결의했다. 세입 예산은 전반적으로 물가 인상을 반영해 3~6%가량 상승했다. 다만 신도교무금은 특별회계 잔액 감소로 인해 일반회계 전입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포교원의 신도교무금 개편이 완료될 때까지 지출을 줄여 적립하도록 조치했다. 조계종 출판사는 사업 추진비 확보를 위해 이익 배당금에서 중단 전입금을 5억 원에

서 3억 원으로 감액했다. 세출 예산에 따른 사업들을 살펴 보면 기획실의 통합전산망 개발 사업이다. 2억 5천만 원이 반영된 통합전산망 사업은 지식 검색 엔진을 탑재한 프로그램이 개발된다. 총무부의 경우에는 종교인 과세에 따라 교역직 스님들의 4대 보험과 건강검진비가 추가됐다.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사업에 1억 원이 편성됐다. 내년에도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자승 스님의 해외 방문이 이뤄질 경우 대상 지역은 중앙아시아가 될 공산이 크다. 실제 올해 호주를 방문했던 자승 스님은 차기 총무원장에 당선됐을 경우 중앙아시아 고려인을 대상으로 한국불교 문화를 알리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도 이뤄진다. 이를 위해 문화부의 불교문화 지적재산권 보호 부문에 780여 만

원이 편성됐다. 문화부는 지적재산권 보호 홍보 및 사례집 발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포교원은 포교인력육성 및 관리를 위한 선명상지도사와 효예지도관리사 자격 도입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이를 위한 연구 예산도 일부 편성됐다. 청소년을 비롯해 청년, 군인 등 계층 포교의 축제로 자리매김한 (재)정불교문화진흥원의 나랏나 축제를 지원하기 위해 1억 원의 지원 예산을 배정한 부분도 눈길을 끈다. 이와 함께 조계종 중앙종회 제196차 정기회는 종법 제개정안을 비롯해 △소초심사위원회, 종립학교 관리위원회 등 인사안 △총무행정 감사 △총무보고 △총책직의 △국정원 선거 개입 엄중 수사 촉구 결의문 채택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단축해 폐회했다. 신종일 기자 molp79@hyunbul.com 관련 기사 2면

불교계, 필리핀 재난 구호 '앞장'

조계종, 12~17일
선발대 급파·모금 진행

불교계가 슈퍼 태풍 하이옌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필리핀의 구호와 지원에 앞장서고 나섰다.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곳은 조계종이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가장 먼저 애도문을 발표하고 현지에서 구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선발대를 급파했다. 조계종은 11월 11일 기획실장 일감 스님 명의로 발표한 애도문에서 "이번 태풍으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한다"며 "희생자 유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필리핀 국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애도했다. 이어 "필리핀 타클로반 지역의 선교사 가족을 포함한 실종자 모든 분들이 무사 귀환하고 더 이상의 희생과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면서 "조계종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살피어 희생자와 수재민들에게 도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세계 각 국가와 구호단체가 한마음이 돼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빠른 시일 내 복구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긴급재난구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11월 12일 현지 선발대를 격려하고 있다. 사진=노덕현 기자

애도문 발표... 동참 호소
로터스월드 등 모금활동

호봉사단 파견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피해자 구호와 피해 복구에 힘을 더하기로 결의했으며, 이를 위해 11월 12일부터 17일까지 선발대를 현지에서 급파하고 상황을 살폈다. 또한 조계종은 1차로 긴급 구호금 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전국 사찰과 불자를 대상으로 구호금 모금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공익 기부재단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은 기부 사이트인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서도 구호기금을 모금 중이다.

천태종 역시 전국 순회법회를 열고 필리핀 돕기 모금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국내 불교계 국제구호개발 NGO 단체들도 필리핀 지원에 동참 중이다. 로터스월드는 12일부터 30일까지 모금활동에 들어갔으며, 월드머시코리아는 1000만원의 모금을 지원키로 협의했다. JTS는 11월 12일 현지조사팀을 파견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 구호 후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지난 8일 필리핀을 강타한 슈퍼 태풍 '하이옌'으로 인해 중부지방에서만 1만 2천여 명의 사망과 실종자가 발생했으며, 한인 10명도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일 기자

'수룩재' 무형문화재 된다

삼화사·진관사 보유단체

문화재청은 '수룩재'를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 예고하고, 삼화사국행수룩재보존회, 진관사국행수룩재보존회, 백운사아랫넌수룩재보존회를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했다. 수룩재는 온 천지와 수룩에 존재하는 모든 고혼의 천도를 위해 지내는 의례이다. 개인 천도 성격을 띤 영산재에 비해 공익성이 두드러진다고 평가된다. 조선초기부터 국행수룩재로서 대규모로 설행돼 온 사실이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문헌에 나타나 그 역사성이 인정됐다. 동해 삼화사는 조선전기 국행수룩재 전통을 계승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고혼 천도의 수룩재 전통을 가진 사찰이며, 의식과 법패, 장엄 등을 아울러 전승하고 있다. 한편, 문화재청은 지난 3월에도 동해 삼화사와 서울 진관사 수룩재의 중요무형문화재 신규 종목 지정을 예고했지만 조사위원 제척 사유 등이 지적돼 철회된 바 있다. 노덕현 기자



천태종은 중창 이래 처음으로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수계산림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총 740명이 수계를 받았다.

"계을 청정하면 깨달음의 광명 빛나리라"

천태종, 11월 10일 구인사서 신도 대상 첫 수계법회

천태종이 중창 이래 처음으로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수계산림 법회를 봉행했다. 천태종(총무원장 도정)은 11월 10일 총복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홍보산 구인사 금강계단 신도 수계산림 대법회'를 열었다. 이날 중창 도정 스님은 법어를 통

해 "계는 저 맑은 연못과 같이 아름다운 연꽃 피워 내리니 계을 청정하게 받아 지나면 깨달음의 광명이 빛나리라. 해탈을 이루는 길 계의 향기 으뜸이라. 간곡하게 일러주시는 그 말씀을 잘 따르라"고 전했다. 이번 수계산림 대법회는 구인사 안거 12회 이상 성만한 신도 중 각

지역 법회에서 모범이 되는 신행활동을 펼치는 청신사 144명, 청신녀 596명 등 총 7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법회에서 안태영·송정은 씨가 수계자 대표로 부처님 전에 헌화와 헌향 했고, 유문두 불자가 수계자 대표로 3사 칠증사 전에 헌향 정례했다. 이날 수계를 받은 김옥분 불자는 "살아가면서 오늘 부처님전에 다짐한 오계를 성실히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피력했다. 단양 구인사=김주일 기자

"간절한 자만이 견성할 수 있다"

조계종 중정 진제 스님 동안거 결제 법어

조계종 중정 진제 스님은 11월 17일 불기 2557년 동안거 결제를 맞아 수좌들에게 용맹정진을 당부하는 법어를 내렸다. 진제 스님은 법어에서 "금생에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 어느 생에 견성법을 만나겠느냐"며 "정법의 인연을 간절하게 세운 자만이 견성법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니 각자 화두를 성성하게 챙겨 일념으로 지속되게끔 혼신의 노력을 다하라"고 말했다. 이어 "크게 죽었다가 크게 살아나는 경지를 얻어야 대장부의 활개를

치게 된다"며 "공부인이 이러한 경지를 얻지 못할 것 같으면 부처님의 참 진리와는 십만 팔천 리 밖에서 헤매이게 됩니니, 석 달 안거 동안에 11월 17일부터 3개월 정진 1백여 선원서 2천 수좌 참여 생사를 떼어놓고 부단히 참구하라"고 강조했다. 11월 17일 입재하는 계사년 동안 거에는 2100여명의 수좌스님들이

100여 선원에 방부를 들이고 3개월간 정진한다. 수좌스님들은 11월 16일 저녁 결제대중이 모인 가운데 각자의 소임을 정하는 용상방(龍象榜)을 작성하고, 17일 오전 10시 결제법회를 갖고 참선정진에 들어갔다. 한편, 안거는 동절기 3개월(음력 10월 15일부터 차년도 1월 15일까지)과 하절기 3개월(음력 4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씩 전국의 스님들이 외부와의 출입을 끊고 수행에 전념하는 것으로, 출가수행자들이 일정한 기간 한 곳에 모여 외출을 삼가하고 정진하는 것을 말한다. 신종일 기자 방장 법어 8면

967호 INDEX

시방세계 지구공생회 10주년, 해외 지원 현장	5	종합 대가회 중진 스님, "법인법 반대" 조계종 교육교육역적 연합회 대장정 축전 의미와 성과 김도읍 의원 청화 스님 폼파 '물'	2·3	신행 재가자 동안거 수행 열풍 복지 7 터프라이스 이색 구호 캠페인 눈길	6
---------------------------	---	---	-----	--	---

화엄의 세계

그구법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진리에 대한 간절한 마음모아 禪, 教, 律의 큰 스승들을 모시고 문수보살의 지혜와 보현보살의 실천 그리고 선재동자의 금강과 같은 구법의 마음을 배우고 이 공덕으로 일체 유정과 무정들이 정도에 왕생하기를 발원하는 화엄산림을 봉행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불지종가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원산 도명 합장

통도사 화엄산림대법회

- 입재 **2013.12.03 (화)**
- 회향 **2013.12.31 (화)**
- 장소 **통도사 설법전**

※ **매주 일요일마다 천도재를 지냅니다.**

- 회 비 영가 동참비 : 1위당 미만원
온산림 동참금 : 이십만원
반산림 동참금 : 십만원
- 문의처 통도사 중무소 ☎ 055)382-7182
통도사 화엄전 ☎ 055)381-1288
- 교통편
 - 부산지역 온천정 지하철역 1번 출구 앞 (08:00~09:00)
 - 울산지역 공설운동장 (07:30) → 학생공원 (07:35) → 우정지하차도 (07:40) → 구고속터미널 (07:50) → 공영R (08:05) → 무가R (08:15) → 통도사
 - 대중교통 부산노포동 종합터미널, 울산 시외버스터미널, 동대구 성남고속터미널
 - 승용차 경부고속도로 통도 IC 통과 후 통도사로 진입